

데이비드 매튜슨 박사,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9장: 설교 전달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의 아홉 번째 시간, 설교 전달 방법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설교 전달 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이 공들여 다듬고 검토한 원고를 전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기도했고,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은 자신이 선택한 구약 성경 이야기 본문을 설교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확신과 스타일을 담아 설교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먼저 무엇을 잊고 무엇을 남겨둘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 원고는 물론이고 메모까지도 잊어버리고 잠시 내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아주 간략하고 축약된 개요만 참고하는 경우에도, 메모 없이 설교하는 것의 이점은 엄청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메모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만,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해드 로빈슨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좋은 설교는 스스로를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잊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큰 흐름만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들려줄 만한 이야기를 하나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걸거나 당신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1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면, 아마 메모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겁니다.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예를 들어 아들이나 딸이 태어났거나, 등산이나 운전 중에 아찔한 탈출을 경험했거나 하는 경우라면, 분명히 세부적인 내용까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책을 깊이 있게 공부했다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들이죠. 이야기의 구조, 주요 흐름 등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특정 등장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거나, 인용구나 삽화를 넣고 싶다면, 그런 부분들을 개요에 포함시키는 게 좋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메모가 일종의 안전 담요처럼 되어버려서, 우리가 청중과 눈을 마주치며 설교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메모가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혹시 달라스 제일침례교회의 조지 트루이트 목사님 처럼 될까 봐 두려우신가요? 그는 메모 없이 설교를 시도해 봤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주제로 7분간 설교한 후 "내 안의 작은 빛이 꺼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충격에서 회복해서 설교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메모 없이, 혹은 약간의 메모만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해보세요. 확실한 공식이나 단계는 없지만, 몇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설교를 잘 구성하세요.

다시 말하지만, 좋은 설교는 그 자체로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시작할 때, 그리고 설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도 몇 번씩이라도 설교 내용을 한 단어 한 단어 적어보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글쓰기는 생각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설교 내용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저는 누구에게도 설교 원고를 암기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해도, 말이 자연스럽거나 대화처럼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도움이 될지 잘 모르겠어요. 스토리텔링의 핵심은 대화하듯이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으세요. 참고로, 여호수아 1장 8절과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묵상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마치 무언가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과 같습니다. 셋째, 원고를 통해 기도하세요.

설교의 주요 부분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각 부분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필요하다면 지금 말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구하십시오. 설교 내용이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면 기도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연구도 기도의 부재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교 준비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기도하고, 설교 원고를 작성하는 동안에도 기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설교를 연습하세요. 설교할 장소인 빈 예배당에 원고를 가지고 가거나, 집 안의 방이나 침실에서 연습해도 좋습니다. 먼저 원고의 일부를 읽어본 다음, 원고를 잠시 내려놓고 메모 없이 또는 간단한 개요만

보면서 그 부분을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원고를 다시 살펴보면서 빠뜨린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교일이 가까워질수록, 특히 많은 분들에게는 일요일이 될 텐데, 메모 없이 설교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특정 부분에서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전환을 다듬거나 매끄럽지 않은 부분을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전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것들은 금처럼 귀중하며, 우리는 청중들이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또는 이야기의 이 부분에서 저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은 우리가 오랜 시간 연구한 끝에 본문에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설교하는 사람들은 우리만큼 본문을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하며, 자연스러운 전환이 중요합니다.

만약 메모 없이 설교하기로 결정했다면, 설교할 성경 본문의 맨 위에 핵심 내용을 적어두는 것을 항상 권장합니다. 여백에 한 단어로 된 메모를 적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저도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설교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성경에 개요를 적어두기도 합니다.

만약 제가 어떤 단어에 대해 이야기할 거라면, 밑줄을 긋거나 동그라미를 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시를 들 거라면, 한 단어로 된 간단한 예시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 성경 여백에 설교 원고를 마치 독일 소시지처럼 뾰뾰하게 움겨 적으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경책을 보고 설교하든, 아이패드나 태블릿에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든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메모 없이 설교할 필요는 없지만, 메모 없이 하거나 최소한의 메모만 사용하는 것이 더 자유롭게 설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기억하고 암기하게 되는지 놀라실 겁니다. 아직 이야기하지 않은 또 다른 주제는 1인칭 시점의 서술 설교입니다. 설교자가 이야기 속 등장인물 중 한 명의 입장에서 본문을 설명하는 방식인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게 좀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해보니 정말 이야기꾼 모드로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덧붙여 말하자면, 1인칭 시점으로 설교를 해본 적이 없더라도, 예를 들어 룻기를 설교할 때는, 저도 베들레헴의 장로 중 한 사람으로서 룻기를 설교한 적이 있어요.

설령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런 식으로 연습해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꾼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오셨을 때, 평소처럼 3인칭 시점으로 설교하시면 됩니다. 만약 1인칭 시점으로 설교하는 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토리 로빈슨과 해든 로빈슨이 쓴 『말하는 방식이 중요하다(It's All in How You Tell It)』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토리는 해든의 아들 이고, 두 사람은 1인칭 시점으로 설교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사실, 그 책에는 제가 쓴 룯기 설교 원고가 실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일을 몇 번 하긴 했지만, 드물게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할 때 의상을 입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곤 하죠. 신학적으로는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예레미야와 에스겔도 의상과 소품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의상이나 소품을 피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의상이나 소품을 사용하는 것이 설교 전달에 도움이 될지 방해가 될지 여부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피하는 편입니다. 아니, 사실 피한다는 건 너무 순화된 표현입니다.

저는 1인칭 시점으로 설교할 때 의상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의상을 사용하면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전히 설교자로서의 자세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저는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다른 작가들을 알고 있는데, 그들은 의상을 활용했고, 효과적이었다는 평도 많습니다. 그러니 의상 활용 여부는 직접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품은 적을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설교할 때 소품이 유용할 때도 있어요. 제가 출애굽기나 사사기 3장 12절부터 30절까지의 에훗 이야기를 설교하면서 단검과 칼을 비교하는 것처럼 설명할 때, 그런 예시를 몇 가지 들곤 했습니다.

저는 칼을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설교하면서 전투 깃발에 대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 만들었습니다. 막대기에 깃발을 꽂고 이것이 기준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간단했지만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들은 사람들이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칼, 동물의 턱뼈, 두루마리, 깨진 도자기 조각 등이 이야기를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품들은 종종 그 자체로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것만 기억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전혀 모르지만, 그 멋진 소품은 확실히 기억할 겁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점은 설교하는 단상, 무대, 연단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 이야기를 설교할 때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꾼들이 종종 조금씩 움직이긴 하지만, 공간이 꼭 넓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으면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는 강단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강단이 상징하는 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존중하지만, 성경에 강단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꼭 강단을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 레이 스테드먼이라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던 때가 기억납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는 강단 뒤에서 나와 앞으로 나와 섰습니다. 그리고 찰스 스펔전이 '겁쟁이의 성'이라고 불렀던 곳 뒤에 숨는 것에 대해 농담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수년간 설교자들이 강단 뒤에서 벗어나면서 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지켜봐 왔습니다. 훌륭한 설교자 양성가인 돈 사누키안이 제자들에게 말하듯이, 강단 뒤에 서 있는 것만으로는 소통에 아무런 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배에서 강단이 고정된 요소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전할 때, 때로는 그 틀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설교는 연기가 아니지만,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설교학도들에게 항상 "계속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라고 말합니다.

이동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지만,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또 C 지점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식으로 이동하세요. 이동하면서 이야기해도 좋지만, 일단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자리에 머무르세요. 설교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시각적으로 산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왔다 갔다 하거나, 다윗 왕이 궁궐에서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특정 문제에 대해 생각을 전달하는 데 그러한 행동이 적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말이죠.

하지만 설교를 할 무대나 장소를 생각해 보실 때, 이동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리 정해진 위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룻기를 다룬다면, 모압이 이쪽에 있고 이스라엘이 이쪽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모압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이 위치로 이동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저는 바로 이 자리, 또는 사무엘상 15장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사무엘과 사울 사이에 대화가 오가는 장면을 떠올려보면, 이쪽은 사울 왕이고 이쪽은 예언자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이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이 두 가지를 헷갈리곤 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 점들을 추가한다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게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실제로 의사소통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계속하실 때, 네, 한 자세를 유지하면서 말씀을 전하세요. 몸짓도 활용하세요. 몸으로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거든요.

방향을 바꿀 수는 있지만, 그 특정 지점에는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설교 전달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정말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설교하는 모든 성경 구절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저는 특히 이야기를 전달할 때 목소리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야기꾼이니까요. 훌륭한 이야기꾼들이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목소리 톤을 다양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즉, 음높이를 바꾸는 거죠.

때로는 목소리를 낮춰야 하고, 때로는 제가 했던 것처럼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말해야 하지만, 때로는 작은 소리로 말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할 때도 목소리를 크게 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맨 뒷줄에 앉은 사람에게 목소리를 맞춰 말하세요. 그리고 말하는 속도도 조절해야 합니다. 때로는 빠르게 말해야 할 때도 있지만, 속도를 늦춰야 할 때도 있습니다.

꼭 그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습니다. 목소리의 높낮이, 음량, 말의 속도 등 여러 요소를 조합하여 등장인물의 감정을 전달하세요.

아니면 해설자가 했던 핵심적인 발언들을 기억해 보세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잠시 멈춰 생각할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덧붙여 말하자면, 적절한 침묵은 능숙한 의사소통자의 손이나 입에서 정말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침묵을 잘 활용하세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과장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저는 오랜 경험을 통해 그걸 배웠어요. 예를 들어, 큰 소리에서 작은 소리로 바꿀 때, 마치 볼륨이 9단계에서 2단계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보면 "와, 겨우 6단계에서 4단계로 떨어진 거네."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더 강조해도 괜찮아요. 제스처도 마찬가지고요.

마치 손짓으로 무언가를 가리키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비를 조금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야기를 전하실 때 큰 몸짓을 사용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몸짓은 설교자들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굳이 왔다 갔다 할 필요는 없어요.

큰 손짓을 사용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생각해 보니, 스토리텔링은 다른 어떤 의사소통 방식보다 손짓을 활용하기에 아주 적합하더라고요. 손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던 것처럼 쇠스랑으로 밀을 공중에 던질 수도 있잖아요.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쏜 화살은 그다지 멋지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을 위해 과장해서 말해야 합니다. 예루살렘이나 우물, 또는 보아스의 밭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햇빛을 가릴 수도 있고요. 장면을 연기할 때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지만, 중요한 건 관객이 장면을 시각화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으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곳이 예루살렘이라면 예루살렘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나중에 다시 여기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말해 보세요. 듣는 사람들이 “잠깐, 예루살렘은 여기 있잖아?”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물론, 헛갈릴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설령 그들이 당신의 실수를 알아채지 못하더라도, 분명히 소통의 단절이 생길 겁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단절은 존재하죠. 예를 들어, 당신은 예루살렘을 찾으려고 이쪽에 갔는데, 예루살렘은 사실 저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실질적인 사항들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회중은 모든 것을 거꾸로 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도를 보면서 예루살렘에서 출발하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열왕기 후반부에 나오는 포로 생활 이야기 중 하나를 다루면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을 설교할 때, 여러분은 마치 지도 뒤에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예루살렘이라면 바빌론은 이쪽에 있는 거잖아요? 완전히 반대죠. 지도를 보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를 보고 예루살렘에서 바빌론으로 간다고 하면 본인에게는 말이 되겠지만, 듣는 사람들에게는 반대로 들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생각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눈맞춤은 정말 중요합니다. 해든 로빈슨은 거의 예외 없이, 청중은 연설자가 자신들을 바라보지 않을 때에도 집중해서 듣지 않는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청중 한 명 한 명을 모두 쳐다볼 필요는 없지만, 특정 사람들을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했던 실수 중 하나를 깨달았는데, 해든 로빈슨이 지적했듯이, 사람들의 머리 위를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밖을 보고는 있지만,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한 청중의 눈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이렇게 시선을 옮기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목표는 단순히 청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눈을 바라볼 때 가장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죠. 물론, 이야기를 전달하다 보면 청중을 응시하거나 허공을 응시하는 순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 말은, 그건 당신이 생각하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잖아요. 저는 심지어 제스처로도 그걸 표현했죠. 팔짱을 끼거나 다른 어떤 제스처를

취하든,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생각하는 캐릭터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건 괜찮아요.

하지만 이것도 전략적인 행동 아닌가요? 제가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знаете что?* 괜찮아요. 이야기꾼들도 가끔은 생각을 정리하려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잖아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청취자들의 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타이밍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잠시 멈추는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한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의 말처럼, 침묵과 타이밍의 언어는 언어적 표현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청중에게 참여하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이해할 시간을 줍니다. 그러므로 이야기의 핵심을 전달하기 전에 몇 초간의 침묵을 고려해 보세요.

정말 좋은 조언이네요. 제 친구 중에 말솜씨가 정말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매끄럽게 말해서, 한때 그의 교회에서 언어 소통에 능통한 사람들, 아마 언어 소통을 가르쳤던 분도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있잖아요, 당신은 너무 매끄럽고 멈춤이 없으니, 말솜씨에 약간의 거칠음이 더 필요해요."

그들은 마치 미끄러운 바닥을 걷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접지력이 전혀 없다는 거죠. 저는 "와, 그런 생각은 전혀 못 했네요."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당연한 거죠. 가끔 제가 하는 말에 너무 신이 나서 계속 말을 이어가는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해요. 그러다 보면 중간에 멈추고 쉬지 않고 계속 말하게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따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말을 멈추면 사람들에게 감정적으로 숨을 고를 기회, 방금 한 말에서 잠시 숨을 돌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이는 방금 한 말이나 앞으로 할 말을 더욱 강조해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언어 전달 기법은 모든 종류의 문학 작품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 전달은 특히 중요합니다. 마치 한 주에서 다른 주로 배송하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전달하고자 하는 구약 성경 이야기가 목적지에 도착해야만 설교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는 실패한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여러분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을 때 감동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고, 설교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준비하고 있는 설교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연습을 계속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티븐 D. 매튜슨 박사입니다. 구약 성경 이야기 설교 시리즈의 아홉 번째 시간, 설교 전달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